

「古今名喩」의 版本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Editions of *Gogyeum-Myeongyu*

朴 文 烈(Park, Moon-Year)*

◁ 목 차 ▷

1. 緒 言	4.1 所藏本別 書名の 字印比較
2. 「古今名喩」의 編者와 刊行時期	4.2 所藏本別 ‘有’ 등의 字印比較
2.1 編者	5. 一山文庫本の 字印
2.2 編成과 刊行時期	5.1 書名の 字印比較
3. 「古今名喩」의 所藏과 形態	5.2 ‘明’의 字印比較
3.1 「古今名喩」의 所藏本	6. 結 論
3.2 「古今名喩」의 形態	<參考文獻>
4. 「古今名喩」의 所藏本別 字印	

< 초 록 >

본 연구는 「古今名喩」의 版本을 비교하여 고구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古今名喩」는 吳仕期가 중국 古代로부터 明朝에 이르기까지의 유명한 典籍들 중에서 名言과 警句를 選錄하여 輯錄한 것으로 萬曆 元(1573, 宣祖 6)年 正月을 전후하여 宣城에 있는 耕野堂의 靜觀樓에서 편성되었으며, 萬曆 5(丁丑, 1577, 宣祖 10)년에 初刊되었다.

(2) 한국에서의 「古今名喩」의 刊本은 國立中央圖書館에 3종, 奎章閣에 1종, 藏書閣 3종, 尊經閣에 1종이 소장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書誌記述의 著錄에서 다소의 차이가 없지 않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은 모두 同一한 版本으로 여겨진다.

(3) 國立中央圖書館에 所藏된 3종의 「古今名喩」를 대비한 결과 이들이 木活字나 金屬活字 등과는 다른 活字로 印出된 것인 듯하다.

(4) 「古今名喩」가 活字印刷術로 刊行된 時期는 英祖年間인 듯하며, 「古今名喩」의 印出에 사용된 活字는 土活字가 아닌가 한다.

要語 : 「古今名喩」, 版本, 版本學, 吳仕期, 土活字, 土活字印刷術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文化情報學部 文獻情報學專攻 敎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07년 5월 13일 최초심사일: 2007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07년 6월 21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hysical and textual characteristics of *Gogeum-Myeongyu*(古今名噓).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Gogeum-Myeongyu* was compiled by O-Sagi(吳仕期) who collected the maxims and wise sayings since the ancient Chinese history to Ming Dynasty. It was written in 1573 and first published in 1577.

(2) In Korea, three copies of *Gogeum-Myeongyu* are currently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re are, respectively, one copy at Gyujang-gak, and three copies at Jongyeong-gak. Although some variances are found in the bibliographic descriptions of those various copies, they all seem to be the same edition.

(3) An analysis of three copies of *Gogeum-Myeongyu* hel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reveals that they were printed with movable types different from wooden movable types or metal movable types.

(4) It is speculated that *Gogeum-Myeongyu* was printed with movable soil-type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Key words : *Gogeum-Myeongyu*, Textual Bibliography, O-Sagi, Movable Soil-Type Printing, Soil-Type.



1. 緒 言

「古今名喻」는 중국 古代로부터 明朝에 이르기까지의 유명한 典籍들 중에서 名言과 警句를 選錄하여 輯錄한 서적이다. 「古今名喻」는 編者인 吳仕期 자신의 修學用으로 選錄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후세에 길이 傳授하기 위하여 選錄되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選錄된 名喻들로 보아 編者 吳仕期가 文章에 대한 鑑識眼이 超逸한 학자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古今名喻」의 編者인 吳仕期和 「古今名喻」의 內容에 관하여는 별로 알려진 바 없으나, 「古今名喻」에 수록된 名喻들은 그 의미가 精微하여 漢文學의 修練用에 일종의 좋은 規範이 될 뿐 아니라, 수록된 哲言과 警句들은 인간의 지성개발·심신수련·처세방법의 지침 등을 제시하는 文章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古今名喻」에 수록된 名喻들은 古今 名家의 여러 文籍에서 널리 選錄하여 輯錄한 것으로, 그 選錄의 저본으로 사용된 引用書도 매우 다양한 편이다. 本文의 末尾에는 選錄에 사용된 引用書를 중심으로 出典들이 明記되어 있다.

필자가 「古今名喻」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古今名喻」의 內容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古今名喻」의 간행에 사용된 活字에 더욱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古今名喻」를 소장하고 있는 각 所藏處의 書誌記述에는 「古今名喻」가 木版本·木活字本·金屬活字本 등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古今名喻」의 印本으로 볼 때, 木版本도 木活字本도 金屬活字本도 아닌 듯하다.¹⁾

本稿는 「古今名喻」의 概括을 바탕으로 「古今名喻」의 版本에 관하여 考察하

- 1) ① 朴文烈, “韓國의 土活字印刷術의 記錄에 관한 研究,” 『書誌學會 春季 學術發表論集』 (서울: 書誌學會, 2007), 23-41.
- ② 朴文烈, “「古今名喻」의 版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會 秋季 學術發表論集』 (서울: 書誌學會, 2006), 23-40. 參看.
- ③ 朴文烈, “「古今名喻」에 관한 研究,” 『古印刷文化』 第13輯(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6), 113-156. 參看.
- ④ 朴文烈, “「古今名喻」의 編次에 관한 研究,” 『人文科學論集』 第35輯(淸州: 淸州大學 校 韓國文化研究所, 2007), 5-30. 參看.

는 동시에 「古今名噐」가 土活字印刷術로 印出된 版本임을 考究하고자 한다.

2. 「古今名噐」의 編者와 刊行時期

2.1 編者

「古今名噐」의 편자인 吳仕期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古今名噐」 각 卷頭의 編著者と 관련된 사항에서 “宛陵野史文臺吳仕期德望甫編輯”²⁾이라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編者 吳仕期는 宛陵에 살았으며 號는 文臺이고, 字는 德望이었음을 알 수 있다.

萬曆 5(1577, 宣祖 10)년에 進士會 侍敎生이었던 蔡逢時가 쓴 「古今名噐」의 서문에 의하면 “나의 社伯인 文臺씨는 성품이 喜樂하고 古籍을 閱讀하여 思考가 高尚하고 思慮가 깊었으며, 卑論에 얽매이지 않고 늘 ‘讀書를 할 때는 大意를 보아야만 바야흐로 文字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³⁾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蔡逢時는 “그는 書几를 淸淨히 하고 香을 사르고 주변을 정제한 후에 서책을 閱讀하면서 마음을 往古에 머무르게 하였는데 마치 大鴻이 바람을 만난 듯하고 물고기가 溪川을 중횡하는 것과도 같았다”⁴⁾고 하면서 그를 진정한 游藝者로 비유하고, 나아가 그와 함께 觀復樓의 共主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와 더불어 會事할 때 날마다 서로 切磋하여 發明된 바가 많았다”⁵⁾고 述懷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古今名噐」의 편자 吳仕期는 진정한 讀書家요, 游藝者

2) 吳仕期 編, 古今名噐. [土活字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全12卷各卷頭條.

3) 吳仕期 編, 古今名噐. [土活字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序條… 余有社伯 文臺氏 性喜讀古 思尙深沉 無屑屑於卑論 每曰讀書見大意 方爲識字人…

4) 吳仕期 編, 古今名噐. [土活字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序條… 故淨几焚香 收視返照 然後展卷披閱 棲心往古 如鴻之臨風 魚之縱壑…

5) 吳仕期 編, 古今名噐. [土活字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序條… 觀復樓共主 君以會事 日相切磋 多所發明…

요, 著述家였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편자 吳仕期의 傳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2 編成과 刊行時期

편자인 吳仕期는 「古今名喩」編輯의 動機에 대해서 그의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옛적에 惠子⁶⁾가 자주 比喩를 써서 말을 하니, 梁王이 그를 힐문하며 ‘원하건대 그대는 直言할 것이지 比喩하지 마시라!’고 하였다. 惠子가 ‘지금 여기에 彈弓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彈弓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을 때, 그가 彈弓의 형상은 彈弓과 같다고 응답한다면 (彈弓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니 梁王은 ‘알 수 없겠다’고 대답하였다. 다시금 응대하여 ‘彈弓의 형상은 弓과 같은 것으로 대나무로 시위를 만든다고 응답한다면 알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니 梁王은 ‘알 수 있겠다!’고 대답하였다. 惠子는 ‘比喩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써 알지 못하는 것을 比喩하는 것인 만큼, 무릇 그 누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耕野子가 이를 듣고서 웃으면서 ‘彈弓으로써 王을 인도(諭)함에 있어 王에게 바로 彈弓을 잡게 하여 억지로 그것을 알게 했다면 學習을 시켜 알 수 있게 하는 眞理만 같지 못한 것이다!’고 하였다. 회(噫)라! 마음의 깨달음이여! 대체로 인간은 天地의 중간을 受容하여 生心은 日月과 같고 應酬은 光照와 같으며 私欲은 雲霧와 같은 것이다. 日月이 구름에 가려도 貞明한 道는 休息되지 않으며 人心이 욕심에 무너져도 本體의 懿範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구름이 흩어지면 天下에는 光彩가 나타나고 사사로움을 掇拾하면 萬物은 모두 照明되는 것이니, 悟者는 이를 修得하고 迷者는 이를 悖惡하는 것이다. 이를 修得하면 吉하고 이를 悖惡하면 凶하며 道理와 私慾의 거리도 깊어지는 것이니, 마음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이여! 내가 일찍이 古籍을 闕讀하면서 감히 인간으로써 廢言할 수 없는 語句들을 볼 때마다 마음을 경계하고 자유로이 收錄하여, 漫積을 卷冊으로 편성하여 錦囊에 보관하였다. 洪細와 高下에 있어 하나를 얻으려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하나, 실은 그 하나로써 나머지 모든 것을 舉網하고자 하였으므로 「警喩錄」이라 명명하였다.⁷⁾

6) 惠子(BC 370-BC 310?): 중국 전국시대의 政治家요 哲學者로 本名은 施이다. 宋나라 사람으로 魏나라의 宰相을 지냈다. 諸子百家 중 名家의 대표적인 인물로 論難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유명한 命題를 提示했다.

7) 吳仕期 編, 古今名喩, [土活字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自序條. 昔惠子 以善喩鳴 梁王詰之曰 願先王直 言無喩 惠子曰 今有人於此 而不知彈者 問曰

이상을 통하여 볼 때, 「古今名喻」의 편찬은 진정한 讀書家, 游藝者, 著述家였던 吳仕期에 의하여 일찍부터 조금씩 選錄되고 編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萬曆 元(1573, 宣祖 6)년에 쓴 吳仕期の 自序에는 “「警喻錄」이라 명명하였다”⁸⁾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보다 5년 후인 萬曆 5(1577, 宣祖 10)년에 蔡逢時가 쓴 「古今名喻」의 서문에 의하면 “그에게는 예전부터 「警喻」一書가 있었는데 일찍이 그가 自記한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편자인 吳仕期가 일찍부터 「警喻」를 기록하여 오다가 그의 장서가 날로 풍부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바가 날로 精微해지자 더욱 편집의 규모를 확대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編成은 혹은 節語와 全文으로, 혹은 托物鑄意와 援古證今으로, 혹은 闡幽顯微와 假粗精誦의 의례를 통하여 編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古今名喻」를 編纂한 時期와 場所는 편자 自序의 末尾에 “歲萬曆元年(1573, 宣祖 6) 春 正月 吉日 宣城 文臺 吳仕期 德望甫 書于耕野堂之靜觀樓”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 「古今名喻」의 편찬은 萬曆 元(1573, 宣祖 6)年 正月을 전후하여 宣城에 있는 耕野堂의 靜觀樓에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進士會 待敎生이었던 蔡逢時가 쓴 「古今名喻」의 序文에 나타나는 “萬曆 5(1577, 宣祖 10)年”은 「古今名喻」의 初刊의 刊行時期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明史藝文志」 권3의 子類의 儒家類에 吳仕期の 저술로 「大儒數言」 33卷이 수록되어 있으나, 「古今名喻」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彈之狀何若 應曰 彈之狀如彈 則知之乎 王曰 不知 復應之曰 彈之狀如弓 而以竹爲弦 則知之乎 王曰 知之 惠子曰 喻者以其所知 喻其所不知 夫誰曰 不可 耕野子 聞而笑曰 諭王以弓 莫若使王操彈 而強使之知 不如習知之爲眞也 噫 可以悟心矣 蓋人受天地之中 以生心其日月也 應酬其光照也 私欲其雲霧也 日月障於雲 而貞明之道不息 人心弊於欲 而本體之慙不亡 雲散則寶宇生光 私探則萬物畢照 悟者修此 迷者悖此 脩之吉 悖之凶 理欲之間也甚矣 心之不可忽也 余嘗讀古 未敢以人廢言 觸目警心 隨筆收錄 漫積成卷 托之錦囊 若洪若纖 若高若下 雖掛一而漏萬 實舉一以該餘 因命曰 警喻錄…

- 8) 吳仕期 編, 古今名喻. [土活字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自序條. … 余嘗讀古 未敢以人廢言 觸目警心 隨筆收錄 漫積成卷 托之錦囊 若洪若纖 若高若下 雖掛一而漏萬 實舉一以該餘 因命曰 警喻錄…

3. 「古今名噓」의 所藏과 形態

「古今名噓」가 언제 朝鮮으로 유입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아마도 中國의 刊本이 朝鮮으로 流入된 후, 朝鮮에서는 筆寫本으로 流通되다가 朝鮮時代 後期에 이르러 刊本으로 流通되었던 듯하다.

朝鮮時代に 간행된 「古今名噓」 刊本の 所藏處와 그 書誌事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古今名噓」의 所藏本

「古今名噓」의 刊本은 國立中央圖書館, 奎章閣, 藏書閣, 尊經閣 등에 全帙 혹은 落帙의 형태로 所藏되고 있다.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1> (일산古032-41)

古今名噓 / 吳仕期(明) 編. - 芸閣印書體字本. -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2卷4冊: 四周雙邊 半郭 20.9 × 13.0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白魚尾[실은 上下內向黑魚尾]; 27.1 × 18.0 cm. 楮紙. 線裝.

版心題: 古今名噓

自序: 歲萬曆元(1573)年春正月吉日宣城文臺吳仕期(明)德望甫書于耕野堂之靜觀樓

序: 歲萬曆五年丁丑(1577)進士會侍教生蔡逢時(明)拜手書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2> (한古朝16-34)

古今名噓 / 吳仕期(明) 編. - 木活字本. -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6卷3冊: 四周雙邊 半郭 21.0 × 13.1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28.9 × 17.9 cm. 楮紙. 線裝.

表題: 善噓

版心題: 古今名噓

序: 歲萬曆五年丁丑(1577)進士會侍教生蔡逢時(明)拜手書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3> (한古朝93-60)

古今名噓 / 吳仕期(明) 編. - 木版本. -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2卷6冊：四周雙邊 半郭 21.0 × 13.3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8 × 16.9 cm. 楮紙. 線裝.

版心題：古今名喻

序：歲萬曆五年丁丑(1577)進士會侍教生蔡逢時(明)拜手書

自序：歲萬曆元(1573)年春正月吉日宣城文臺吳仕期(明)德望甫書于耕野堂之靜
觀樓

<奎章閣所藏本> (古170 O8g)

古今名喻 / 吳仕期(明) 編. - 木活字本. -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肅宗年間
(1674-1720)].

2卷1冊：四周雙邊 半郭 21.0 × 18.2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30.0 × 17.8 cm. 楮紙. 線裝.

版心題：古今名喻

自序：歲萬曆元(1573)年春正月吉日宣城文臺吳仕期(明)德望甫書于耕野堂之靜
觀樓

印記：□山宋吾道軒山肅藏

<藏書閣所藏本 1> (C14C 1E)

古今名喻 / 吳仕期(明) 編. - 印書體木活字本. -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刊
行年未詳].

8卷4冊：四周雙邊 半郭 21.2 × 13.6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2 × 17.4 cm. 楮紙. 線裝.

版心題：古今名喻

序：歲萬曆五年丁丑(1577)進士會侍教生蔡逢時(明)拜手書

自序：歲萬曆元(1573)年春正月吉日宣城文臺吳仕期(明)德望甫書于耕野堂之靜
觀樓

<藏書閣所藏本 2> (C14C 1)

古今名喻 / 吳仕期(明) 編. - 木活字本. -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刊行年未
詳].

12卷6冊：四周雙邊 半郭 21.2 × 13.6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8.3 × 17.7 cm. 楮紙. 線裝.

版心題：古今名喻

序：歲萬曆五年丁丑(1577)進士會侍教生蔡逢時(明)拜手書

自序：歲萬曆元(1573)年春正月吉日宣城文臺吳仕期(明)德望甫書于耕野堂之靜
觀樓

<藏書閣所藏本 3> (K3-608)

古今名喻 / 吳仕期(明) 編. - 木活字本. -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肅宗
12-30(1686-1704) 頃].

8卷4冊：四周雙邊 半郭 21.2 × 13.4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8.3 × 17.2 cm. 楮紙. 線裝.

版心題：古今名喻

序：歲萬曆五年丁丑(1577)進士會侍教生蔡逢時(明)拜手書

自序：歲萬曆元(1573)年春正月吉日宣城文臺吳仕期(明)德望甫書于耕野堂之靜
觀樓

表紙稍接紙年記：康熙二十五年(1686)

<尊經閣所藏本> (C14C-0003)

古今名喻 / 吳仕期(明) 編. - 傲芸閣印書體木活字本. -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
詳], [英祖-正祖年間].

12卷6冊：四周雙邊 半郭 21.1 × 13.3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8.1 × 17.0 cm. 楮紙. 線裝.

版心題：古今名喻

序：歲萬曆五年丁丑(1577)進士會侍教生蔡逢時(明)拜手書

自序：歲萬曆元(1573)年春正月吉日宣城文臺吳仕期(明)德望甫書于耕野堂之靜
觀樓

이상에서 보면 「古今名喻」의 刊本은 國立中央圖書館에 3종, 奎章閣에 1종,
藏書閣 3종, 尊經閣에 1종이 所藏되고 있다. 각 기관마다 書誌記述의 著錄에서
다소의 차이가 없지 않다.

우선 書名·著者事項은 모든 所藏本에서 한결같이 “古今名喻 / 吳仕期(明)
編”으로 동일하게 저록되고 있으며, 그 외에 邊欄, 界線, 行字數, 魚尾⁹⁾, 紙質,
裝訂, 版心題 등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著錄되어 있다. 그러나 版本, 刊行事項,
卷冊數, 半郭의 크기, 冊의 크기 등의 저록에서는 所藏本마다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版本事項에 있어서는 <국립중앙도서관본 3>에서 “木版本”으로
저록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木活字本”으로 저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본 1>에서는 “芸閣印書體字本”으로, <장서각본 1>에
서는 印書體木活字本으로, <존경각본>에서는 傲芸閣印書體木活字本으로 저
록되어 있다. 刊行事項에 있어서 刊行地와 刊行者の 경우에는 모든 소장본에

9) 魚尾의 경우 <國立中央圖書館本 1>을 제외한 모든 版種에서 “上下內向黑魚尾”로 저록
되어 있으나, <國立中央圖書館本 1>에는 “上白魚尾”로 저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목록
기술에서의 錯誤일 뿐, 실제로 <國立中央圖書館本 1>의 어미도 上下內向黑魚尾이다.

“간행지미상” 또는 “간행자미상”으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表 1> 「古今名喩」의 所藏本別 書誌事項 比較

	國中本1	國中本2	國中本3	奎章閣本	藏閣本1	藏閣本2	藏閣本3	尊經閣本
書 名	古今名喩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編 者	吳仕期(明)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版 本	芸閣印書體 字本	木活字本	木版本	木活字本	印書體 木活字本	木活字本	木活字本	倣芸閣印 書體木活 字本
刊 行 事 項	刊地未詳 刊者未詳 刊年未詳	國1同	國1同	肅宗年間	國1同	國1同	肅 宗 12-30 頃	英祖 - 正 祖年間
卷冊數	12卷4冊	6卷3冊	12卷6冊	2卷1冊	8卷4冊	12卷6冊	8卷4冊	12卷6冊
邊 欄	四周雙邊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半 郭	20.9×13.0	21.0×13.1	21.0×13.3	21.0×18.2	21.2×13.6	21.2×13.6	21.2×13.4	21.1×13.3
界 線	有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行字數	10行20字 註雙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魚 尾	上下內向黑 (上白魚尾)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책크기	27.1×18.0	28.9×17.9	27.8×16.9	30.0×17.8	27.2×17.4	28.3×17.7	28.3×17.2	28.1×17.0
紙 質	楮紙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裝 訂	線裝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表 題	古今名喩	善喩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版心題	古今名喩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序	萬曆元年… 吳仕期	-	國1同	-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自 序	萬曆五年… 蔡逢時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國1同
印 記	-	-	-	□山宋吾 道軒山肅 藏	-	-	-	-
表紙 接年記	-	-	-	-	-	-	康熙25	-

그러나 刊行年度の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본 1·2·3>과 <장서각본 1·2>에서는 “간행연도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규장각본>에는 “肅宗年間 (1674-1720)”으로, <장서각본 3>에는 “肅宗 12-30(1686-1704) 頃”으로, <존경

각본>에는 “英祖-正祖年間”으로 저록되어 있다. 卷冊數에 있어서도 소장본마다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소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 「古今名喻」의 원래 권수가 12권임을 감안 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본 2>·<규장각본>·<장서각본 1·3> 등은 낙질이며 <국립중앙도서관본 1·3>·<장서각본 2>·<존경각본> 등이 完帙임을 알 수 있다.

半郭의 크기에 있어서는 대체로 21.2 × 18.2 cm를 중심으로 소장본마다 다소의 出入이 있으나, 이는 書誌作成者의 眼識에 관련된 차이로 보인다. 또한 冊의 크기에 있어서도 대체로 30.0 × 18.2 cm를 중심으로 소장본마다 다소의 出入이 있으나, 이는 書誌作成者의 眼識과 改裝에 관련된 차이로 보인다. 그러나 책의 크기에 있어서 <규장각본>의 서지기술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題에 있어서는 <국립중앙도서관본 1·3>·<규장각본>·<장서각본 1·2·3>·<존경각본> 등에서 “古今名喻”로 저록되어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본 2>에서만 “善喻”로 저록되어 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본 2>의 표지가 改裝될 때에 표제를 새로이 添入하였던 때문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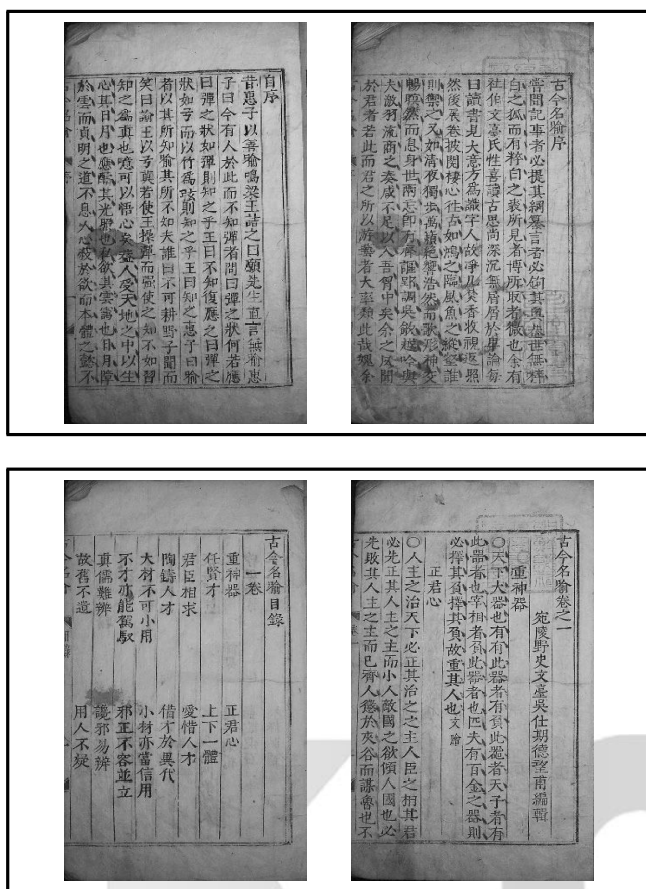
또한 모든 소장본에 “歲萬曆元(1573)年春正月吉日宣城文臺吳仕期(明)德望甫書于耕野堂之靜觀樓”의 自序는 모두 수록되어 있으나, “歲萬曆五年丁丑(1577)進士會侍敎生蔡逢時(明)拜手書”의 蔡逢時의 序는 <국립중앙도서관본 2>와 <규장각본>에는 수록되지 않고 있다.

한편, <규장각본>에는 “□山宋吾道軒山肅藏”라는 印記가, <장서각본 3>에는 “康熙二十五年(1686)”의 表紙褙接의 年記가 수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각 소장본마다 서지기술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은 모두 同一한 版本으로 여겨진다.

3.2 「古今名喻」의 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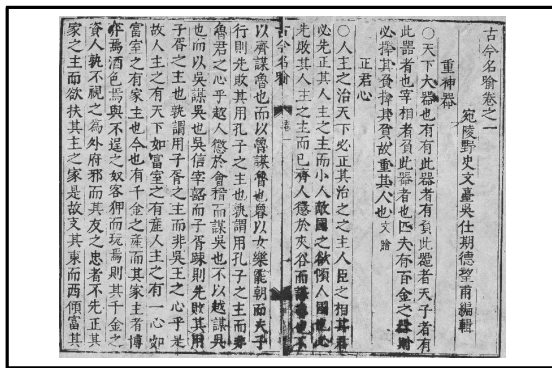
「古今名喻」의 형태사항을 <國立中央圖書館本 3(한古朝93-60)>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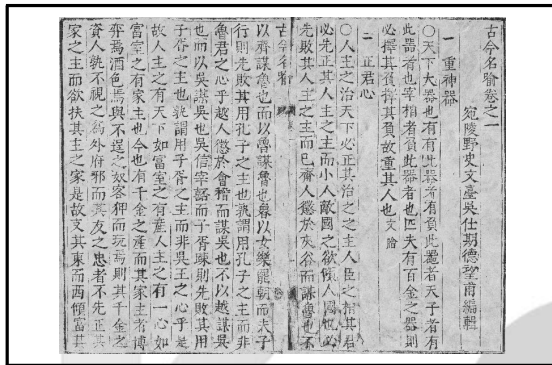
<寫眞 1> 「古今名喻」의 形態

4. 「古今名喻」의 所藏本別 字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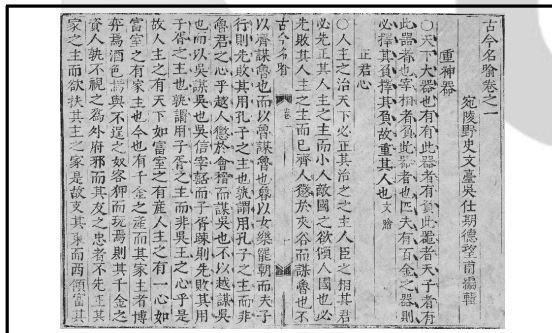
「古今名喻」의 각종 所藏本에 나타나는 字印의 檢證을 위하여 <國立中央圖書館本 1·2·3>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寫眞 2>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1의 第1卷 第1張



<寫眞 3>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2의 第1卷 第1張



<寫眞 4>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3의 第1卷 第1張

4.1 所藏本別 書名・著者事項의 字印比較

國立中央圖書館에 所藏된 3종의 「古今名喻」는 同一한 版本으로 推定된다.

이를 위하여 <國立中央圖書館本 1・2・3>의 卷頭書名과 編著者事項에 나타나는 字印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圖 1>과 같다.

<圖 1> 「古今名喻」의 所藏本別 書名・著者事項 字印 比較 (國中本 1・2・3)

	古	今	名	喻	卷	之	一	備 考
<國 1> 일산고 032-41	古	今	名	喻	卷	之	一	
<國 2> 한고조 16-34	古	今	名	喻	卷	之	一	
<國 3> 한고조 93-60	古	今	名	喻	卷	之	一	

	宛	陵	野	史	文	臺	吳	
<國 1> 일산고 032-4	宛	陵	野	史	文	臺	吳	
<國 2> 한고조 16-34	宛	陵	野	史	文	臺	吳	
<國 3> 한고조 93-60	宛	陵	野	史	文	臺	吳	

	仕	期	德	望	甫	編	輯	
<國 1> 일산고 032-4	仕	期	德	望	甫	編	輯	
<國 2> 한고조 16-34	仕	期	德	望	甫	編	輯	
<國 3> 한고조 93-60	仕	期	德	望	甫	編	輯	

<국립중앙도서관본 1·2·3>은 동일한 版本임에도 불구하고 印出된 狀態가 서로 달라 다소 相異한 감을 느끼게 한다. <국립중앙도서관본 1>은 墨色의 濃薄도가 매우 고르지 못하다. <국립중앙도서관본 2·3>도 <국립중앙도서관본 1>에 비하여 印出의 狀態가 좋은 듯하나, 이 또한 일반적인 木活字나 金屬活字 등의 活字本の 印出狀態와 비교하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字印들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4.2 所藏本別 ‘有’ 등의 字印比較

「古今名喩」의 印出狀態가 좋지 못한 것이 書名·著者事項의 字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古今名喩」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國立中央圖書館本 1·2·3>의 제1권 제1장에 나타나는 ‘有’·‘人’·‘也’ 등의 字印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圖 2>와 같다.

<圖 2> 「古今名喩」의 所藏本別 ‘有’·‘人’·‘也’의 字印 比較 (國中本 1·2·3)

<國 1> 일산고 032-41	有	有	有	有	有	有	有
<國 2> 한고조 16-34	有	有	有	有	有	有	有
<國 3> 한고조 93-60	有	有	有	有	有	有	有
卷面行字	01010407	01010408	01010412	01010420	01010515	01011605	01011612

<國 1> 일산고 032-4	人	人	人	人	人	人	人
<國 2> 한고조 16-34	人	人	人	人	人	人	人
<國 3> 한고조 93-60	人	人	人	人	人	人	人
卷面行字	01010611	01010802	01010815	01010905	01010911	01010917	01011004

<國 1> 일산고 032-4	也	也	也	也	也	也	也	也
<國 2> 한고조 16-34	也	也	也	也	也	也	也	也
<國 3> 한고조 93-60	也	也	也	也	也	也	也	也
卷面行字	01010406	01010504	01010512	01010612	01010919	01011029	01011105	01011011

<圖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본 1>은 墨色の 濃薄度가 매우 고르지 못하며, <국립중앙도서관본 2·3>도 일반적인 木活字나 金屬活字 등의 活字本の 印出狀態와 비교하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5. 一山文庫本の 字印

「古今名喻」의 一山文庫本은 <국립중앙도서관본 1>이다. 一山文庫本 「古今名喻」는 <국립중앙도서관본 2·3>과 동일한 版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問題點이 나타나고 있다.

5.1 書名の 字印 比較

一山文庫本 「古今名喻」全 12卷의 각 卷頭와 卷末에 나타나는 卷頭書名과 卷末書名の 字印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圖 3>과 같다.

<圖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山文庫本 「古今名喻」全 12卷의 각 卷頭와 卷末에 나타나는 卷頭書名과 卷末書名の 字印에서도 墨色の 濃薄度가 매우 고르지 못하며, 일반적인 木活字나 金屬活字 등의 活字本の 印出狀態와 비교하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圖 3> 一山文庫本「古今名喻」의 卷頭와 卷末 書名の 字印 比較 (國中本 1)

古	今	名	喻	卷	之	幾	幾	備考
古	今	名	喻	卷	之	一		卷頭
古	今	名	喻	卷	之	一		卷末
古	今	名	喻	卷	之	二		卷頭
古	今	名	喻	卷	之	二		卷末
古	今	名	喻	卷	之	三		卷頭
古	今	名	喻	卷	之	三		卷末
古	今	名	喻	卷	之	四		卷頭
古	今	名	喻	卷	之	四		卷末
古	今	名	喻	卷	之	五		卷頭
古	今	名	喻	卷	之	五		卷末
古	今	名	喻	卷	之	六		卷頭
無	無	無	無	卷	之	六		卷末
古	今	名	喻	卷	之	七		卷頭
古	今	名	喻	卷	之	七		卷末

古	今	名	喻	卷	之	八		卷頭
古	今	名	喻	卷	之	八		卷末
古	今	名	喻	卷	之	九		卷頭
古	今	名	喻	卷	之	九		卷末
古	今	名	喻	卷	之	十		卷頭
古	今	名	喻	卷	之	十		卷末
古	今	名	喻	卷	之	十	一	卷頭
古	今	名	喻	卷	之	十	一	卷末
古	今	名	喻	卷	之	十	二	卷頭
古	今	名	喻	卷	之	十	二	卷末

5.2 ‘明’字의 字印 比較

一山文庫本「古今名喻」全 12卷에 나타나는 ‘明’字의 字印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圖 4>와 같다.

<圖 4> 一山文庫本 「古今名喩」의 ‘朋’字의 字印 比較 (國中本 1)

朋 _{41字} 卷面行字	朋 01030508	朋 01030712	朋 01040612	朋 01081320	朋 01140715	朋 01261320	朋 01261405	朋 02191903
	朋 02281912	朋 02290107	朋 03130503	朋 03220301	朋 03261819	朋 03311612	朋 05240602	朋 05240811
	朋 05281920	朋 05282020	朋 06061105	朋 06061107	朋 06181706	朋 08221402	朋 08240204	朋 08281018
	朋 08301407	朋 08340101	朋 09050304	朋 09221413	朋 09230410	朋 09271511	朋 09341607	朋 10180307
	朋 10212003	朋 11020203	朋 11041511	朋 12151105	朋 12201203	朋 12260214	朋 12331915	朋 12341009
	朋 12351819							

明 _{26字} 卷面行字	明 02191119	明 03312011	明 04040417	明 04141212	明 04180903	明 04180903	明 05030309	明 05181002
	明 05281804	明 06092015	明 06161320	明 06250715	明 07011703	明 07110101	明 07261616	明 07331310
	明 08050102	明 08271503	明 09200319	明 09341816	明 10030416	明 11070319	明 11151014	明 12021719
	明 12151702	明 12220510						

明 ^{69字} 卷面行字	明	明	明	明	明	明	明	明
	01031407	01040805	01051020	01101216	01151111	01181208	01250715	01271404
	明	明	明	明	明	明	明	明
	01281208	02110605	02191218	02191617	02191914	02281309	02281610	03081506
	明	明	明	明	明	明	明	明
	03082007	03310614	03311401	03311402	04060202	04141203	04201514	05091810
	明	明	明	明	明	明	明	明
	05180916	05241909	05281603	05281705	05342002	06071216	06190415	06190610
	明	明	明	明	明	明	明	明
	06191709	06211914	06250908	06260407	06301018	07011618	07091209	07120108
	明	明	明	明	明	明	明	明
	07170409	07250917	08060410	08151318	08181815	08241902	08291211	08351118
	明	明	明	明	明	明	明	明
	08360904	09060908	09200414	09221605	09331511	09342015	10012003	10210417
	明	明	明	明	明	明	明	明
	10231108	10301911	11031609	11061604	11151020	12022004	12080101	12161002
	明	明	明	明	明			
	12200403	12220404	12251208	12310208	12351916			

일반적으로 活字本에서 印出의 狀態가 좋지 못한 것은 (1) 活字의 문제, (2) 墨의 문제, (3) 紙質의 문제, (4) 印出技術의 문제 등에서 起因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본 1>에서 墨色의 濃薄度가 고르지 못하게 나타나는 것은 墨의 문제나 紙質의 문제도 없지 않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印出에 사용된 活字가 土活字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¹⁰⁾ 또한 印出匠의 미숙한 印出技術도 큰 원인으

10) 이에 관하여는 紙面을 달리하여 別稿에서 論及하고자 한다.

로 보인다. 그것은 活字의 印出에는 縱으로 印出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립중앙도서관본 1>에서는 橫으로 印出한 痕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古今名喻」 제12권 제25장에 수록된 <水火交濟> 중에 “分不能懲則火炎上 慾不能窒則水流下 是謂水火不交 能懲忿則火不上炎 能窒慾則水不下流 是謂水火既濟 故曰吉凶悔吝存乎動 蓋思者心之動也 思火則熱 思冰則寒 思酸則涎 思臭則吐 悲則雨淚 辛則雨涕 憤則結廔(癭) 怒則結疽 心有所之 神有所栖 心失其虛 神離其居 甚矣 思之不可不謹也”¹¹⁾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본 1>에는 “...悲則雨□ 辛則雨涕 憤則結廔...”으로 인출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본 3>에는 “...悲則雨淚 辛則雨涕 憤則結廔...”으로 인출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 1>은 “悲則雨□”에서 □ 부분이 闕字¹²⁾인 점에 비하여 <국립중앙도서관본 3>에는 “悲則雨淚”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들이 活字로 印出되었다는 증거인 것이며, <국립중앙도서관본 1>의 印出時에 이미 “淚”자가 組版上에서 탈락된 채로 인출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립중앙도서관본 3>의 인출이 <국립중앙도서관본 1>보다 더 앞서 印出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본 1·3> 모두에 “憤則結廔”은 “憤則結癭”이라야 마땅할 것이다.

이상을 통하여 본다면 「古今名喻」의 刊本은 모두가 동일한 版本의 活字本임을 알 수 있으며, 印出에 사용된 活字는 土活字가 아닌가 한다.

6. 結 論

이상에서 서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古今名喻」는 중국 古代로부터 明朝에 이르기까지의 유명한 典籍들 중에

11) 吳仕期 編, 古今名喻. [土活字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卷12. 張25-26.

12) 吳仕期 編, 古今名喻. [土活字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1. 卷12. 張25 行20 字1.

서 名言과 警句를 選錄하여 輯錄한 것이다. 編者는 吳仕期는 宛陵 出身으로 號는 文臺이고 字는 德望이었으며, 진정한 讀書家요 游藝者요 著述家였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그의 傳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古今名喻」는 편자인 吳仕期가 일찍부터 「警喻」를 기록하여 오다가 그의 장서가 날로 풍부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바가 날로 精微해지자 편집의 규모를 확대시켜, 萬曆 元(1573, 宣祖 6)年 正月을 전후하여 宣城에 있는 耕野堂의 靜觀樓에서 편성되었으며, 萬曆 5(丁丑, 1577, 宣祖 10)年에 初刊되었다.

(3) 한국에서의 「古今名喻」의 刊本은 國立中央圖書館에 3종, 奎章閣에 1종, 藏書閣 3종, 尊經閣에 1종이 소장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書誌記述의 著錄에서 다소의 차이가 없지 않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은 모두 同一한 版本으로 여겨진다.

(4) 國立中央圖書館에 所藏된 3종의 「古今名喻」는 동일한 판본임에도 인출의 상태가 서로 달라 다소 상이한 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제12권 제25장에 수록된 <水火交濟>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본 1>에는 “...悲則雨□ 辛則雨涕 憤則結慶...”으로 인출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본 3>에는 “...悲則雨淚 辛則雨涕 憤則結慶...”으로 인출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 1>은 “悲則雨□”에서 □ 부분이 闕字인 점에 비하여 <국립중앙도서관본 3>에는 “悲則雨淚”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들이 活字印刷術로 印出되었다는 증거이다.

(5) 「古今名喻」가 活字印刷術로 刊行된 時期는 英祖年間인 듯하며, 「古今名喻」의 印出에 사용된 活字는 土活字가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朴文烈, “韓國의 土活字印刷術의 記錄에 관한 研究,” 「書誌學會 春季 學術發表論集」, 서울: 書誌學會, 2007. 23-41.

朴文烈, “「古今名喻」에 관한 研究,” 「古印刷文化」 第13輯 淸州: 淸州古印刷博

物館, 2006. 113-156.

朴文烈, “「古今名噓」의 版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會 秋季 學術發表論集」, 서울 : 書誌學會, 2006. 23-40.

朴文烈, “「古今名噓」의 編次에 관한 研究.” 「人文科學論集」第35輯 清州 : 清州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2007. 5-30.

吳仕期 編, 古今名噓. 芸閣印書體字本.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2卷4冊.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일산古032-41)

吳仕期 編, 古今名噓. 木活字本.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6卷3冊.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한古朝16-34)

吳仕期 編, 古今名噓. 木版本.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2卷6冊.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한古朝93-60)

吳仕期 編, 古今名噓. 木活字本.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肅宗年間 (1674-1720)]. 2卷1冊. 奎章閣所藏本. (古170 O8g)

吳仕期 編, 古今名噓 編. 印書體木活字本.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8卷4冊. (C14C 1E)

吳仕期 編, 古今名噓. 木活字本.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刊行年未詳]. 12卷6冊. 藏書閣所藏本. (C14C 1)

吳仕期 編, 古今名噓. 木活字本.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肅宗 12-30(1686-1704)頃]. 8卷4冊. 藏書閣所藏本. (K3-608)

吳仕期 編, 古今名噓. 倣芸閣印書體木活字本.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英祖-正祖年間]. 12卷6冊. 尊經閣所藏本. (C14C-0003)

КСІ